



동북아 군축평화

- 신학적 성찰과 상황분석



일시 : 2014년 9월 26-27일

장소 : 제주도 서귀포성당/ 강정마을

주최 : 천주교 제주교구, 예수회 한국관구

□ 목차 □

- 목 차 -

- 2014 강정 평화 컨퍼런스 시작에 주제성찰 하나 --- 03
Stephen Kelly 신부(예수회) 연대인사
- 기조강연 : 복음과 국가 ---07
강우일 주교 (제주교구장,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 주제발표 2 : 신앙에 바탕을 둔 실천행동 – 미국에서 ---17
Michele Naar-Obed, (Plowshare, catholic worker movement,
Christian Peacemaker Team)
- 주제발표 3 : 오키나와에서 본 평화헌법 --- 41
谷 大二(**Tani Daiji**) 주교 (전 일본 주교회의 정의평화 위원회
위원장, 오키나와에서 평화운동)

2014 강정 평화 컨퍼런스 시작에 주제성찰 하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리라!

Stephen Kelly (예수회)

미국 Oakland, Plowshare 행동 참여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리라!" (이사야 2,4)

Stephen Kelly SJ

강정 평화컨퍼런스를 앞두고 원래 주제 발표를 하시기로 했다가 참석하지 못하게 되신 Stephen Kelly 신부님이 박문수 신부님과 미셸 역사에게 함께 하는 마음과 뜻을 전해왔습니다. 함께 연대하는 마음으로 군축평화를 위한 신학적 성찰에 대해 전하신 Kelly 신부님의 글을 함께 생각할 과제로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돌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리라"

말씀 안에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도덕적인 회심을 체화하도록 하는 명령으로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자적 회심의 비전!

컨퍼런스에 참가하시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에 대해 짧게 전하고자 합니다.

증세에 따라 진단한다.

- 1)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를 '제국으로' 만든 결과 교회가 권력을 얻었습니다.
- 2) 그러나 그 권력은 시대를 거둬들이며 예수님이 십자가로 선포하신 것, 즉, 적극적 비폭력 행동으로 죄악과 폭력에 대항하는 (복음)선포를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 3) 그래서 해방, 의미, 그리고 ;치유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강론과 교리가 의미있게 머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단:

교회는 권력에 야합했고 (예컨대 정의로운 전쟁 이론의 부적절함,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을 누락시킴), 십자가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많은 경우에 경시하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빠진 성경은 인식론적으로 적용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방은 무엇인가?

신앙 공동체, 하느님의 백성 안에서 먼저 폭력으로부터 회심하는 것입니다. 곧 이사야서

2, 4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기보다 폭력에 사로잡힌 상상력에 따라 폭력을 선택하는 상태를 구마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은 권력과 폭력을 지닌 교회의 편의, 제국적인 특성을 약화시키는 길을 웅변적으로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 회심으로 십자가를 다시 지는 것은 이 세상 죽음의 길로 가는 구조에서 영혼을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자신을 다시 회복하고 교회의 구성원들이 예수님의 길에 증언자로 다시 서게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들 안에서 우리를 계속 축복해주시길 빕니다.

순교자들의 토요일에

스테판 켈리 드림

Martyrs Saturday

Dear Michelle & Fr Frank B

Peace of Christ be with you both and with families and conference and with all for whom you care to include...

Hope that each of you are very well and enjoy meeting soon.

Just wanted to impart a few words on behalf of the vision of prophetic conversion given us by God in the biblical injunction to embody political, economic, and moral conversion in Isaiah's swords to Plowshares

Diagnosis follows Symptoms:

- 1) Church acquired power with Constantine's empirizing the church.
- 2) That power has through the ages corrupted Jesus' Kerygma of the cross, the pro-active, non-violent confrontation of sin and violence.
- 3) Homilies and catechetics miss being meaningful to those seeking liberation, meaning and healing.

Diagnosis:

The church has made an accommodation with power (i.e. Inadequacy of just-war theory, missing imitation of Christ), the cross isn't communicated and often trivialized. Without the cross the scriptures are epistemologically devoid of application...

What is the cure?

The conversion of violence incipient in the assembly, the people of God. Namely, Isaiah 2:4 is an exorcism of the violence-possessed imagination's recourse to violence chosen over Christ's example.

Isaiah 2 serves to demonstrably embody the de-empirizing of the church's accommodation with power and violence. Retrieving The Cross in embodying conversion, liberates the soul from the structures of this world's way of death. The church retrieves itself, it's members as witnesses to Jesus' way.

Thanks for reading this.

Prayers joined with thine

May God continue to bless us in yourselves...

steve kelly s.j.

□ 기조강연 □

복음과 국가

강우일 주교

제주교구장,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복음과 국가’

강우일 주교

국가와 통치권력

세월호 사고 직후에 유가족 중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이런 국가의 국민으로 살고 싶지 않다. 문제가 일단락되면 다른 나라로 이주하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새삼스럽게 생각했다. ‘국가란 무엇일까?’

사전에 보면 국가는 ‘일정한 영토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통치권을 갖고 있는 공동체, 나라’ 라고 되어 있다. 국가는 통치권을 갖는 공동체라고 풀이한다. 국민을 다스리는 권력을 가진 주체다. 그렇다면 국가는 국민의 위에 자리하고 국민은 국가에 추종해야 하는 아랫사람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여기서 국민이라는 단어 자체에 문제가 있다. 국가의 백성이라는 말인데 국가를 이루는 사람들이니, 국가 쪽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

이러한 개념에는 좀 문제가 있다. 우리 헌법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 조에 나오는 말이다. 우리 헌법 정신에 의하면 국가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통치권은 국민에게서 받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라고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우리 헌법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훌륭한 법이다. 그런데 이 헌법 정신이 우리 현실에서는 제대로 살려지지 못하고, 일반 사전에 나와 있는 국가 개념, 즉 국민 위에 군림하며 통치하는 국가라는 개념이 더 활개를 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20 세기 전반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인류는 진리를 하나 깨달았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생명을 멋대로 박탈하거나 훼손할 권리는 아무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라고 해도 인간 생명과 기본적인 인권을 마음대로 박탈할 권리는 갖지 못한다는 깨달음이다.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 희생된 수 천만 생명의 죽음과 고통을 통해서, 인간 생명은 국가의 가치 위에 선 존재라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국가가 존재하기 전부터 국가 권위의

근원을 부여하는 주체라는 인식이 근원적으로 형성되었다. 그래서 1948 년 12 월 8 일 유엔에 모인 50 개국 정상은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보통 나라, 국가라고 하면 아주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를 갖고 있고, 국민 모두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켜내야 하는 신성한 존재로 인식한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몸 바치는 사람을 존경하고, 애국자라고 찬양한다. 그러나 인류가 살아온 역사의 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가(nation, state, country)라는 존재는 과연 진정으로 그런 신성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 냉정하게 비판하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역사의 여정에는 국가의 이름으로 가공할 불의와 죄악이 엄청나게 자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국민 대다수의 동의나 공감을 얻지 않고, 소수 권력자들의 편향된 이념이나 권력을 위해 정당치 못한 폭력적 방법으로 힘없는 대중을 억압하고 멋대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수 천만 명의 인명을 살상한 2 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나? 독일 나치 정권이 한 짓이다. 조선을 식민지로 하여 36 년간 수탈하고, 아시아 여러 나라를 침략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남경에서 30 만 명 대학살극을 일으킨 세력은 누구였나? 일본 제국주의 정권이다. 모두 신성한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했다. 사회주의 인민 공화국을 만든다며 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말살한 소련, 민족을 해방한다며 6.25 전쟁을 일으켜 또 수백만 명을 희생시킨 북조선, 모두 국가와 민족으로 이름으로 저질렀다.

세계 초강국으로 막강한 국력을 자랑하는 미국은 1789 년에 건국되었다. 미국 건국의 역사는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이주로 시작되었다. 처음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항해하여 찾아가서 원주민들과 교류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차츰 더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왔다. 원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상품을 주면서 눌러 앉았다. 원주민들은 대대로 땅을 개인이 소유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다. 땅은 자기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조상대대로 그냥 거기 있었고 아무도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내 것이라고 금 굿고 다른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주민들이 들어와 집짓고 살아도 거부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다. 아무도 원주민에게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럽에서 온 이주민들은 자기들이 사는 땅에 금을 굿기 시작했다. 내 땅이라고 문서에 등록하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점점 더 소유권을 넓혀가기 시작했다. 점점 더 많은 이주민이 몰려오면서 그들은 원주민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총과 대포로 그들을 쫓아냈다. 결국은 대륙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다 차지하고 원주민들은 좁은

보호구역 안에 가두어 버렸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하고 새로운 국가로 건국하였을 때, 유럽계 이주민은 100 만 명 정도였고, 원주민은 1 천만 명 정도였다. 그런데 그 후 100 년이 지나면서 이주민은 1 억 명으로 늘어났고, 원주민은 50 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주민은 100 배가 늘어났고, 원주민은 20 분의 1 로 줄어들었다. 100 년 사이에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이주민들이 이룬 건립한 국가가 아무런 경계도 없이 그냥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자유롭게 흩어져 살던 원주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난 원주민들은 학살당하고, 식량을 박탈당하고, 질병에 시달리다 자손의 대가 끊겼다. 이것이 USA 라는 국가가 건립된 경유다. 그렇게 성찰해본다면, 정말 국가라는 존재에 신성하고 숭고하고 절대로 지켜야 할 가치란 것이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일본이란 나라 원래는 봉건 제도로 이루어진 나라. 각 지역마다 영주가 있었다. 지역 영주끼리 영토를 놓고 전투를 벌였다. 이를 조정하려고 제일 힘센 영주가 중앙통치기구인 막부를 설정하였다. 막부는 영주가 막부에 얼마나 공헌하는가에 따라 영토를 빼앗기도 하고 더 보태주기도 하였다. 그러다 막부가 너무 오래 과도한 힘을 올바르게 못한 방법으로 독점하자 영주들 몇이 힘을 합하여 전투를 벌이고 막부를 무너뜨렸다. 그리고 천황이란 신화적 존재를 동원하여 제국을 세웠다. 그 제국의 권력을 더 확대하고 공고히 하려고 그들은 다른 아시아 이웃 나라를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강제로 조약을 맺고 관계를 설정한 다음 왕권을 무너뜨리고 자기 나라에 통합해버렸다. 이것이 오늘의 일본이란 국가가 형성된 과정이다.

유엔이란 세계 50 여개국 대표가 모여서 남한 단독 선거를 가결하고 국민의 투표로 정부가 설립되고 대한민국 헌법이 정해지고 국호가 선포되었다. 이승만 정권의 행적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나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국민의 총선거를 통한 민의에 의해 구성된 정부였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1948 년 8 월 15 일 건국을 선포했는데 10 월 17 일에 제주도에만 계엄령을 선포하고 4.3 에 대한 본격적인 진압을 명령하여, 그 결과 무장세력을 일소한다는 명목으로 제주 중산간 마을을 초토화하고 민간인들을 집단학살하기 시작했고 6.25 전쟁이 터지자 적에게 협조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인물을 예비검속이란 명목으로 체포하고 아무런 정당한 재판 과정 없이 무더기로 처형하였다. 결국은 제주도 전체 주민의 10% 이상 3 만여 명이 학살당했다. 같은 시기에 전국 각지에서도 보도연맹에 가입되어 있던 이들이 북한군에 협력할 우려가 있다는 명목으로 20 만 명이 무더기 학살당하였다. 학살 현장의 기록 사진은 옛날 나치의 유대인 학살

광경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과거사 위원회에서 이 보도연맹에 관한 진실을 밝혀나가다가 2009 년 말 정권이 교체되면서 종결되고 말았다. 국가가 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볼 때, 국가란 과연 무엇인가,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 국가가 국민 전체의 행복과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이지만, 국가가 현실 속에서 존재하고 기능하는 양상을 보면, 제한된 극소수가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국민 모두의 공동선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소수 지도층의 명분과 이익을 위해 비합법적인 폭행과 범죄의 주체로 일해 온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 그리고 국가가 섬기고 보호해야 할 국민의 결코 침해해서는 안 되는 기본적 인권을 유린해온 사례가 허다하니, 국가란 국민이 항상 무조건 추종하거나 순종하여야 할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대단히 많다.

국가란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마음대로 조정할 절대적 권위를 아무에게서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국가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마치 그런 권위를 받은 것처럼 행동해 왔다. 권력자들은 고대에서부터 자신들이 제정한 여러 법률체계와 상징물을 통하여 국가를 신격화시켜왔다. 고대 왕정시대에는 임금이 신에게서 직접 권력과 위엄을 선물 받은 신성한 존재임을 백성들 뇌리에 각인시키기 위해 임금이 제관의 직무를 겸임하였다. 이는 몇몇 인간들이 받들어 세운 국가를 신의 작품으로 신화화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물론 현대에 와서는 그런 방법이 먹혀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권력자들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여전히 국가에 무엇인가 초월적인 권위의 근거가 있을 것이라는 분명치 않은 막연한 인식이 아직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들 그리스도인은 인간들의 공동체인 국가를 근거 없는 신화에서 해방시킬 사명을 띠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상의 평화를 쌓아 올리려면 우리 모두가 국가라는 신화화된 존재 그 위에 올라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력을 행사하는 이들도 신격화된 국가에서 해방될 때 비로소 국가를 초월하는 더 높은 궁극적 가치를 향하는 전망을 가질 수가 있다.

즉 국가 권력도 국가를 현실 속의 가치체계의 최고 순위에 놓지 말고, 국적, 국경을 넘어서 인간들 모두의 행복과 평화를 추구하는 전망을 열어갈 수 있을 때 세상에 참된 평화가 시작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와 나라의 마찰과 분쟁은 세상 끝날까지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와 영토

지금 세계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곳은 중동 지역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긴장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계속 애꿎은 노약자들이 죽어나갔다. 또 시리아 지역 내란이 심각하여 지난 4 년 동안 10 만 명이 훨씬 넘는 이들이 죽어갔고, 200 만 명 넘는 이들이 고향을 떠나 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이라크 수니파 중심으로 무장 세력들이 아이시스라는 새로운 이슬람 국가를 만들었다며, 많은 사람들을 잔인무도하게 죽이고 내쫓고 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

지금의 중동 지역은 고대에서부터 여러 제국들이 땅을 놓고 뺏고 빼앗기고 한 각축장이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은 나그네로 떠돌다가 노예생활 하던 에집트를 탈출한 후 모세의 인도 하에 40 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여호수아의 인도로 겨우 팔레스티나 땅에 정착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이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로 기대했으나 그곳에는 이미 여러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팔레스티나'라는 명칭은 히브리인들이 정착하기 200 여 년 전부터 이미 북쪽에서 이주하여 온 필리스테인(성서에서는 블레셋 인이라고 표기)의 땅이었다는 데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히브리인들이 이 블레셋 사람과 다른 원주민들과 수많은 갈등과 전투를 거친 끝에 이스라엘 왕국(기원전 1050 년 경)을 세우는 데는 200 년이 걸렸다. 그러나 이 왕국은 얼마 안 가서 남북으로 양분되었고, 기원전 722 년에는 북쪽을 아시리아가 점령하였고 남쪽 유다 왕국은 기원전 586 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 완전히 멸망했다. 그 이후 페르샤, 그리스, 로마, 오스만 제국이 차례로 이 지역을 지배하였고, 세계 1 차 대전 이후 1920 년부터 1948 년까지는 영국의 식민지였다. 오늘날 이스라엘 새 정부가 다스리고 있기는 하지만, 팔레스티나의 긴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이 땅이 유대인들만의 것이라고 단언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투쟁과 갈등의 역사는 비단 팔레스티나뿐만이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가 겪어온 비슷한 갈등의 내용이기도 하다. 인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헤아릴 수 없는 전쟁과 분쟁을 일으켰고, 참으로 많은 피를 흘렸다.

성서의 전통에서 땅은 본디 어떤 특정한 인간이 독점할 수 있는 소유가 아니다. 레위기에 보면 땅은 어디까지나 하느님이 잠정적으로 인간에게 관리를 위탁한 하느님의 소유이지 인간이 이를 영구히 자기 것으로 만들 자격은 없다. 사정이 어려워져 땅을 남의 손에 넘겼다 하여도 희년이 되면 땅은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성서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내 곁에 머무르는 이방인이고 **거류민**일 따름이다.'(레위.25,23) 땅에서 나는 모든 소출의 십분의

일을 하느님께 바치라는 십일조의 규범도 땅에서 얻은 모든 복이 다 그 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복에 감사하는 뜻으로 봉헌하라는 의미다. 일곱째 해에는 경작을 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들이 굶주림을 해결하도록 하라는 안식년 규범도 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고, 하느님께서 힘없는 이들에게도 먹을 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니 아무도 땅의 권리를 독점하지 말라는 의미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사악, 야곱에게 여러 차례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땅의 소유 개념과는 다르다. 하느님께서 땅을 주시는 것은 그곳에서 살며 농사짓고 가축을 키우며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신다는 의미이지 땅 자체를 소유물로 내어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새로운 땅에 이를 때마다 그 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제사 지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도 이사악도 일생을 나그네살이를 했지 땅 주인이 되어 대지주 노릇을 한 적은 없다. 이는 이사악에게 내리신 주님의 말씀에서도 드러난다. “너는 이 땅에서 **나그네살이** 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에게 복을 내려 주겠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루어 주겠다.”(창세기 26,3) 하느님은 이사악에게 땅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지만 그곳에서 나그네살이를 하라고 하신다.

야곱이 요셉을 의지하여 에집트로 내려가서 파라오를 만나고 파라오가 그의 나이를 묻자 야곱은 이렇게 응답한다. “제가 **나그네살이**한 햇수는 백삼십 년입니다. 제가 산 햇수는 짧고 불행하였을 뿐 아니라 제 조상들이 **나그네살이**한 햇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창세기 47,9) 야곱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일생을 ‘**나그네살이**’로 인식한다. 나그네라는 자아 인식은 인간이 이 세상을 잠시 스쳐 지나치는 여행객으로 이해하는 표현이다.

아브라함과 이사악, 야곱의 하느님께서 그들을 평생 나그네로 살도록 부르신 것은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땅덩어리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었을까? 그리하여 그들을 땅에 대한 집착과 소유욕을 초월한 자유로운 삶,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는 믿음의 삶으로 초대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느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도 땅이 제공하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 땅을 제공해주신 하느님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들을 짓고 살게 될 때, 또 너희 소 떼와 양 떼가 불어나고 너희에게 은과 금이 많이 생기며,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불어날 때,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내신 주 너희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신명기 8,12-19)

그러나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정착하면서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뜻을 섬기기보다는 그 땅이 주는 소출과 부에 더 마음을 빼앗겼다.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면서 일찍부터 그곳 땅을 일구어 오던 농경민들의 관습과 그들이 섬기던 종교까지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사회적, 물질적 제도와 탐욕까지도 모두 넘겨받았다. 그러다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모든 땅을 다 빼앗기고 사방으로 끌려가고 쫓겨 가고 흩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느님은 새로운 땅을 말씀하신다.

“보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예전의 것들은 이제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으리라. 늑대와 새끼 양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으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그들은 악하게도 패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라.” (이사야 65,17.25)

예언서의 가르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와 전망을 제시한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집착하던 약속의 땅은 팔레스티나의 한 땅덩어리를 초월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종말론적인 땅으로 탈바꿈되어야 함을 예언자들은 제시한다.

예수님은 구약의 백성이 그토록 매달리고 되찾으려고 했던 땅을 ‘하늘나라,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으로 대체하신다. 여기서 하늘은 땅의 것들과는 크게 대비된다.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땅과의 인연을 끊고 이 땅을 초월하는 새로운 땅을 추구하도록 가르치고 경고하신다.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 간다.”(마태오 6,19)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땅)를 버린 사람은 모두 백 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마태오 19,29)

예수님은 당신과 당신 제자들이 근원적으로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님을 가르치셨다.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요한 3,31) 예수님은 땅에서 살지만, 땅에서 분리되어, 거룩한 하느님의 땅으로 도약하여야 할 존재였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리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일 것이다.”(요한 12,32) 예수님을

따르던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자의식과 세계관을 이어받아 '자신들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일 따름이라고'(히브리 11,13) 인식 하에 "사실 땅 위에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올 도성을 찾고 있습니다."(히브리 13,14) 하고 고백하였다.

일전에 일본 후쿠오카에서 주교회의가 주관하는 일본 전국정의평화대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거기서 기조강연을 하도록 초대 받았었는데, 그 때도 오늘처럼 국가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둘째 날 나도 현장체험 그룹에 끼여서 함께 버스를 타고 '치쿠호오'라는 옛 탄광지대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그 지역에서 강제징용당해 끌려간 조선인들이 많을 때는 15 만 명이 갱도에서 일했는데 너무나 열악한 환경의 중노동과 굶주림과 탄광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은 곳이다. 그 탄광 흔적을 보러 간 그룹 참석자가 30 여명 정도 있었는데 각자가 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어디서 온 누구라고 자기소개를 했다. 한 사람씩 돌아가는데 한 외국 수녀님이 자기소개를 했다. 그 수녀님은 내 강연을 들은 다음에 내게 와서 자신도 역사 속에서 국가가 인간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어 왔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한 분이였다. 그 수녀님은 참석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의 국적은 하느님 나라이고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2014. 9. 26

□ 주제발표 2 □

신앙에 바탕을 둔 실천행동 - 미국에서

Michele Naar-Obed

Plowshare, catholic worker movement, Christian Peacemaker Team

신앙에 바탕을 둔 실천행동 - 미국에서

Michele Naar-Obed

성장배경

저는 가톨릭교회와 아주 가깝게 밀착되어 있고 강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며 연결하는 이탈리아계 가족 안에서 자랐습니다. 가톨릭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공부했고 성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톨릭 전통의 성사 순서대로, 유아세례를 받고 초등학교 2 학년에 고해성사와 첫 영성체를 했구요, 7 학년 때에 견진성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자라난 아이였지만 아직 그 공의회 정신을 가지지 않은 사제들과 수녀들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리와 신앙고백기도문을 암기하고, 어떤 설명이나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한 채 엄격하게 요구되는 전례 행위를 기계적으로 행했습니다.

저는 또 1960 년대의 산물이었습니다. 혼란과 반란과 실험과 질문의 시대에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가족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가게 안에서도 여러 세대에 걸쳐 알코올 중독이나 이혼, 그리고 다른 스캔들이 흔히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지침이나 안내나 윤리적 나침반을 제공하고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 저는 16 살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났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보고 세상, 아니 적어도 저의 직접적인 가까운 주변 환경을 보고 경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찌감치 저는 삶에서 제가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한 옳고 그름의 차이를 알았습니다. 늘 옳은 것을 실천하고 그릇된 것을 피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의 이웃이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주변에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고 버림받은 이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도 버림받은 사람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버림받은 이들과의 체험 안에서 이것들을 인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이 시간을 내 인생에 반영하기 위한 성찰의 시간을 가졌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경험에 더 가까이 다가가 바라보고 거기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들이 내 인생의 기초를 이루게 될 블록을 세우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기초는 성령의 등 위에 업혀

있는데, 항상 흔들림 없이 견고하고 정확하며 명확하고 잘 짜여져 있고 질서 있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거친 파도 위에 떠있는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곳에서 세상이 일으키는 기대감이나 유혹에 속지 않고 우리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희망과 약속과의 차이를 잘 알아 식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요. 하느님께서 해 주신 계약을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제게 좋은 연습을 시킨 거친 파도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분들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저의 믿음을 토대로 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저는 믿음의 렌즈를 통해 이해하고 성찰하고 실행하도록 부단히 노력합니다. 실제로 하느님께서 보편적으로 존재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삶에서 책임져야 하는 주된 과제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들이 연결되어있는 전체의 공동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플라우세어 실천행동

이것에 따라 내 믿음을 실천하기 위한 한 가지 길이 "플라우세어 [보습] 운동"이었습니다. 첫 번째 플라우세어 행동은 1980 년에 실행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미국 시민들이 이제 '평화로운 시대'를 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우리 모두 두려움 없이 살아갈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자본주의를 보존하고 제국을 지탱한 정부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것들과 매우 다르고 매우 끔찍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었던 신앙인들의 아주 작은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앞잡이들이 닫힌 문 뒤 아주 어두운 밀실에서 아주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핵무기 확장과 선제공격 시나리오 등을 포함한 훨씬 더 치명적인 악마의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면서 이사야 2 장 4 절, 이사야의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그들은 이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그러나 실제적인 행위로 그 시대의 '칼'을 쳐서 생명을 주는 기구를 만듦으로 무기철폐의 과정을 시작했는데 우리 미국 정부는 핵 확산 방지조약과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요구하는 여러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전부 플라우세어 행위가 순진하고 효과가 없으며 바보 장난과 같은 것으로 보이게 되어 있었지요. 그들이 망치로 치고 피를 쏟아 부었던 핵탄두 노즈 콘의 생산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선제 핵폭탄 공격 준비도 계속되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수조 달러 예산도 계속해서 준비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행위는 미국의 핵 정책의 방향을 바꾸도록 무엇을 한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첫 번째로 핵 짐승을 직접 타격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이 부패와 권력이 숨어 있는 어두운 구석에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어떤 이들은 이것이 제국이 무기를 철폐하고 군축으로 가도록 이끌 수 있게 마음과 정신을 비무장화하도록 하는 힘들고도 오래 걸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초대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정말 아마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이겠지요..

아무튼 그 첫 번째 플라우세어 행동이 하나씩 둘씩 다른 행동을 이끌어서 200 번 이상 이어졌습니다. 34 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최근의 “트랜스폼 나우 플라우세어 : 지금 보습으로 바꾸도록 하자” 행동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2012 년 7 월 28 일, 미간 라이스 수녀님과 미카엘 왈리씨, 그리고 그레그 보르체 오베드씨가 밤의 어두움 속에 오크 리즈 테네시의 Y-12 국가 보안 구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특정한 건물을 찾으려 했던 것인데요, 그것은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이었습니다. 그들은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이 지도나 지침서 아무 것도 없이 어두움 속에서 수십만 평의 넓은 땅을 헤매며 그 건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두 시간 동안 걸어 다니다가 거의 포기하려고 할 무렵, 바로 그 핵 짐승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펜스와 가로대 장애물을 통과하고 총과 보안 체계를 넘어 지나서 더듬더듬하듯 표시되지 않은 길을 따라가면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심과 앞서간 많은 증인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런 간섭도 방해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상징적 행위로 더욱 더 고농축된 우라늄, 즉, 무기에 사용할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의 초석을 쳤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피를 부어 스프레이로 뿌려 건물에 이사야의 예언을 썼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켜 놓으며 “나의 이 작은 빛, 나 이것이 밝게 비추게 하리라” 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침내 경비원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빵을 쪼개어 나누며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나의 몸, 너희를 위해서 부서진 나의 몸이니, 너희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받아먹어라”. 경비원이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 경비원이 총을 쏘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았겠지만 그는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행위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들은 **평화 시위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총을 쏘지 않고 총에 손을 대지도 않았던 그 경비원은 결국 그 결과로 퇴직을 당했습니다. 이 Y-12 핵 시설은 1960 년대에 체결된 핵 확산 금지 조약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또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더 분명하게 하느님의 법을 위반하고 하느님께서 오래 전에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제국은 법원에서 하수인들을 통해서 그 조약과 법들의 효능을 없애버리고 무기와 무기 제조업자들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미간 라이스 수녀와 미카엘 왈리씨, 그리고 내 남편 그레그 보르체 오베드씨가 한 것은 무기철폐, 군축만이 아니라 변환하는 일을 하도록 성령 안에서 길을 연 것이었습니다. 핵시설 안에서, 법정에서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이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성령께도 쉽지 않은 과제지만 부단히 애쓰시는 성령이시니 이것이 이루어지게 올려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때때로 우리가 핵전쟁에 얼마나 가깝게 갔었는지에 대해 듣습니다. 큰 재앙이 될 만한 핵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었는지를 알면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가 일어났을 때 저는 어린이였습니다. 정부는 학교 책상 아래에 숙이고 숨어 있는 연습으로 핵전쟁에 대비해서 우리를 준비시켰습니다. 웃기는 일이지요. 하지만 더 나쁜 것은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를 양심 없이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임을 알고 있었죠!

몇 년 후,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에 관한 문서들의 기밀문서 취급이 해제된 후에 저자 짐 더글러스는 쿠바 미사일 위기와 그 핵 대결과 핵 대학살을 피하게 된 상황에 대한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핵폭탄 버튼에 손가락을 둔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와 니키타 흐루시초프는 세계의 운명과 그들의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의 운명을 고민해서 이 지옥에서 빠져 나가고 모든 생명체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서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군사 고문과 안보 고문들이 전쟁의 과정을 시행하도록 압력을 주고 있었지만 성령의 숨결이 더 강해서 두 사람은 핵 전멸의 위기에서 세계를 선도할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 그들이 존중하는 제국의 국가원수들이 믿음의 도약을 해서 성령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요청할 때 하느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은 충실히 하느님을 따랐습니다.

때때로 저는 각각의 군축 플라우세어 행동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느님께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한 하느님의 자문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플라우세어 군축행동의 흐름 안에서 제가 한 것은 두 개의 행동에 참여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레그와 결혼한 지 3 주가 되던 1993 년 성 금요일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결혼을 확증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투하 50 주년을 기념하는 1995 년 8 월 7 일이었습니다. 우리 딸 레이첼을 임신하고 있었을 때 이 행동을 준비했습니다. 핵집승의 얼굴을 보면서 그 아이를 출산했고 레이첼이 10 개월 되던 때 트라이던트 핵 잠수함을 망치로 치고 내 피로 표시를 남겨 주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간 후의 이야기이지만 “USS Greenville”이란 그 잠수함은 각각 다른 세 번의 사고를 겪은 다음 더 이상 쓰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잠수함이 저주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아마도... 신앙에 기반을 둔 행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CPT(평화를 만드는 크리스천 팀)의 일원으로 이라크에서의 체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다음과 같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무기와 전쟁에 ‘아니요’라고 하는데,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무엇에 “예”라고 해야 하는가?” 평화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갈등은 항상 우리가 져야 할 짐인 것 같습니다. 갈등에 대응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것을 하나 말씀 드립니다. 기도할 때 요청할 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한 것을 그대로 얻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치명적 분쟁이 있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화를 만드는 크리스천팀 (이하 CPT)]이란 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CPT 라고 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크리스천 팀 CPT 는 신앙에 토대를 두고 분쟁해소를 위해 일하는 풀뿌리 단체입니다. CPT 는 시민 사회 조직 안에서 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초청을 받은 지역에만 들어갑니다. 우리는 국가 정부나 UN 이나 관련 단체의 초청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환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들이나 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초청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제 생각에 아직도 CPT 사람들에게 연결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치명적 분쟁 가운데서 지역 주민과 함께 일하도록 초청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지역 주민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할 보편적이면서 함께 머무는 신, 즉, 보편적인 하느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서로 신앙의 눈은 달라도 우리는 다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함께 지옥을 벗어날 길을 찾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CPT 의 팀들은 4 개의 국가에 있습니다. 한 달 훈련을 받고 몇 개의 대표단에 참여한 후, 저는 이라크 팀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처음 그 팀에 참여한 것은 2002 년이었는데요, 그 때는 바트당 정권이 전복되기 전이었고, '충격과 두려움'이란 공격을 실행하기 전이었으며, 해방 정책이 점령 정책으로 바뀌기 전이었고, 누리 알-말리키가 이끈 괴뢰 정부가 들어서기 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인간 방패나 영웅의 역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들어간 것은 증거를 남기고 주민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쟁과 그 준비에 대해서는 "종군" 기사만 취재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었지만 종군기자들은 정복자들이 그들에게 허락한 장면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군인을 심판하거나 단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정책들, 잘못된 정치 및 군사된 정책으로 인한 결과를 증언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제임스 가르너의 **해방** 정책에서부터 퍼울 브렘머의 **점령** 정책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정책들이 이라크 주민들간의 관계에 입힌 상처들이 우리 눈에 보였습니다. 순니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1 세부터 70 세까지의 모든 남자들이 '테러 혐의자'로 체포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라크 변호사들이 이들을 찾으려 노력해서 알게 된 것은 이들이 미국과 영국이 관리하는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감옥에서 이들이 고문과 굴욕을 받고 자주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팀은 악명 높은 아부 그라립 감옥 및 캠프 부카 및 그와 같은 기타 지옥 구멍에 있었던 생존자 71 명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보고서를 발표할 때 모든 미디어 체인이 며칠 동안 기사들을 내놓았지만 미국소유의 미디어만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고서를 들고 고향으로 돌아 갔을 때 아무도 이것이 무엇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팀은 아부 히쉬마라는 마을 전체에 대한 불법 집단 처벌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 근방에 미국의 이른바 "장기 군사 기지"가 설립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14 개의 장기 기지 중에 하나였어요. 발랄드 시에 위치한 어린이 학교는 나중에 "아나콘다 기지"가 되었는데 그 안에 골프장과 맥도날드와 버거 킹과 타코 존스 등이 있었고 또한 모든 죽은 병사를 시체 가방에 넣어 미국으로 다시 보내도록 처리하는 시체 보관소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영구적 주둔에 항의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처벌 받거나 사라졌습니다. "닭이 헛대에 오르기

위해 보금자리에 되돌아오다” 라는 속담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세대인 ISIS 가 지금 이 기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은 팔루자 시가 완전히 파괴되고 흰색 인을 화학 무기로 불법 사용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살바도르 옵션”이라 이름을 붙인 저강도 반란에 대해 전쟁정책을 수립하고 카운터 반란 전쟁 기술, 즉, 고문, 공포의 생성, 혼돈과 이라크 진영 간의 갈등 도모를 체계화시킨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문실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 안에 있는 미국 군사 고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 해서 이 이야기들을 알리도록 했지만 USSR 철의 장막이 아닌 철의 장막으로 인해서 막혔습니다.

‘화기’에 너무 가까이 접촉한 우리 팀 중에 4 명이 납치당했는데 이라크 포로의 석방을 얻기 위해 정치적 인질로 이용되었습니다. 심지어, 잡힌 우리 팀 구성원들을 이라크 여성 포로의 석방을 위한 협상에 내놓았습니다. 4 개 월 후에 영국군이 이룬 협상을 통해서 3 명이 풀렸지만 이미 한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시체는 3 명이 풀리기 약 2 주 전에 공항에 가는 길옆에 검은 쓰레기봉투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던 이라크 주민, 즉, 인권 추진자와 비폭력 활동가와 시민 사회 조직가들은 그 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있는 것이 그들에게 더 많은 폭력을 유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그다드에 남아 있는 유일한 외국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즉, UN 종사자와 NGO 단체 사람들은 UN 건물 폭파 사건 후에 떠났고 그 후에 국제 적십자 건물까지 파괴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다 군사 계약자나 점령 국가의 군인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는 이라크 사람은 국가의 적과 협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쉬웠었습니다.

CPT 팀은 우리의 방식으로 스토리 말하기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심지어 철의 장막을 뚫을 수 있어서, 고위급 장교도 포함된 군인들이 이라크 국민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고문과 인권 유린의 범위를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몇몇 유럽 국가들은 전쟁 범죄 은닉 혐의로 딕 체니와 조지 부시 2 세와 도널드 럼스펠드에 대한 체포 영장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팀은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이라크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바그다드 시가 안전하게 될 때까지 거기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바그다드의 안전은 끝까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무는 동안 쿠르드족의 투쟁에 대해, 그리고 그들과 중동과 세계의 관계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사라지고 이라크의

쿠르드족은 북부 비행 금지 구역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쿠르드족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터키나 이란,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은 이라크의 쿠르드족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쿠르드 주민의 초청을 받은 CPT 는 지금까지도 이라크 북쪽의 쿠르드 지역에서 주민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독립과 하느님께서 주신 인권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그들 투쟁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3 년동안 쿠르드족과 같이 살았고 10 년 동안 그들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들 사회의 깊이와 풍요로움, 그들의 관계들과 투쟁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의 기록된 역사는 9000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의 고대 종교 중 많은 것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ISIS 가 신자르 산 지역에서 Yezides 신자를 공격하여 그들의 전멸의 위협을 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은 이 새로운 괴물 ISIS 는 미국의 '산물'이라고 점점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한 제국과 맞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누군가 어떤 힘으로 투쟁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면 다시금 그 대답은 믿음입니다. 쿠르드족과 아랍인, 무슬림 교도와 칼데아 가톨릭 신자와 조로아스터 교도와 Yezides 의 마음에서 저는 하느님과 매우 가까운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제국의 그림자 아래, 제일 악한 인간 행동의 현장에서, 가장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안에서, 총알이 날아가는 전투현장에서 그들을 통해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참으로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고 그들이 여러 번 내게 하느님을 다시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선물은 저의 생명을 다 바쳐 갚아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저의 마음이 이 사람들과 결합되어 있을 것입니다.

쿠르드족에게서 보편 하느님을 만난 경험을 간단히 예로 들고 싶습니다. 2011 년 2 월에 팀과 같이 활동하고 있을 때 쿠르드 사람들이 '쿠르드의 봄'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일어난 봉기 바로 뒤에 일어났는데 나중에 이 현상을 '아랍의 봄'이라고 했습니다. 쿠르드 청년들이 바르자니-달리반이 정치 체계 안에서 행하고 있는 부정에 저항할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족 지도자로서 자기 부족 구성원들과 같이 바트당 정권에 대한 투쟁을 해서 사담 후세인의 독재로부터 쿠르드가 해방되는 과정을 도왔습니다. 1980 년대에 그들이 산에서 싸울 때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투사이긴 하지만 사회 안에서 정치적 지도자가 하는 일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쿠르드의 정치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라크에 있는 모든 쿠르드인들에 대해서도 더 좋은 생활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 년 후

쿠르드 주민들은 자신들의 꿈이 족벌주의, 부패, 그리고 내전에 의해 산산조각 나 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주민들은 이 두 지도자들이 전체 쿠르드 공동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에게만 이익이 되는 계약을 맺은 것을 보았습니다.

2011 년에 청년들이 길에 나가서 시위했지만, 정치 지도자들의 대응은 폭력적이었습니다. 시위의 대부분은 우리 CPT 팀이 살고 있는 술레이마니아에서 일어났습니다. 62 일동안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거의 62 일 동안 그 청년들과 같이 길에서 생활했습니다.

시위는 비폭력적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비폭력에 대한 엄격한 코드를 지켰습니다. 정부의 앞잡이들이 시위대가 폭력으로 대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약 75 킬로에 떨어진 미국 영사관도 시위에 대한 정보를 받고 있었지만 그것은 폭력적 군사 단속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시위대가 폭력으로 대응하도록 이끄는 정부 에이전트들이 전달하는 정보였습니다. 미국의 정책은 폭력적 봉기가 일어나지 않은 한 정부에 항의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바르자니-달리바니 정권의 권한이 지속될 것을 강하게 바라고 있었지만 청년들은 꼬란당이란 새 정당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영사관에 있는 미국 외교관들은 공개적으로 꼬란당 지도자와 같이 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르자니 씨와 달리바니씨는 친 서양, 친 기업체, 친 원유(오일)인 사람입니다. 서양의 손에서 꼭두각시로 잘 훈련된 사람입니다.

시위가 시작되고 며칠 되었을 때 무슬림 종교 지도자들이 <자유 광장> 이란 시위현장에 찾아왔습니다. 그 광장에서 금요일 기도를 진행하기 시작했는데, 부정과 탐욕과 제지받지 않은 권력에 대해 신앙의 기반 위에서 항의하는 것에 관해서 설교했습니다.

어느 금요일에 저는 물라 알리 카마론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통역이 없는 탓으로 조금 밖에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내용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를 보고 하루의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려고 이웃집에 갔었습니다. 그 집 부인은 몇 번 우리 옆에 서서 시위에 참여했지만 남편은 공공연하게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뉴스 방송이 시작됐고 물라 카마론이 광장에서 설교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쿠르드 말만 나오고 있었지만, 여러 언어를 아는 이웃이 그 내용을 통역해주었습니다. 물라 카마론이 말하고 있는 동안 그 이웃은 굉장히 흥분하면서 쿠르드 말로 "조르 주와나" ("아주 멋있다!") 그리고 "라스타" ("맞아!) 그리고 내가 알아 들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시르완"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설교의 의미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시르완이 갈수록 더 흥분해서 통역할 겨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 빠나즈가 서툰 영어로나마 시르완의 큰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설교 내용을 전해주려 애썼습니다.. 빠나즈가 시르완의 흥분된 큰 소리를 누르고 더 큰 소리를 낸 바람에 시르완이 텔레비전 소리를 더 크게 올렸습니다. 빠나즈가 또 더욱 큰 소리를 내고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이 지속하다가 갑자기 정전 상태에 텔레비전이 꺼졌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잠깐 숨을 조절하고 차를 마시면서 해바라기 씨를 씹어 먹었는데 드디어 시르완씨가 몰라 카마론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씀은 엘살바도르 군인들이 성당 뒤 쪽에 서서 지키는 가운데 로메로 대주교님이 하신 말씀과 거의 같은 것이었습니다. 로메로 대주교님은 군인들에게 무기를 내려놓고 과두 정치의 이익을 위해 농민 형제자매를 살해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했습니다. 그 강론 때문에 로메로 주교님은 다음 날에 살해당했죠.

몰라 카마론은 62 일 동안 우리를 포위해서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 **“형제여, 무기를 내놓으라. 정의를 요청하고 외치는 너의 형제를 추격하지 마라. 이것은 불신자를 맞이하는 싸움이 아니고 비폭력 혁명이며 부정과 탐욕과 권력자의 위법행위를 끊을 혁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 날 밤에 무장 괴한들이 와서 몰라 카마론의 집에 총을 쏘았습니다. 그 뒤에 그는 체포되었고 수준 낮은 혐의, 허가 없이 시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시는 자유 광장에 오지 말라고 하는 강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바로 다음 금요일에 다시 시위 광장으로 온 그는 역시 체포되고 반테러법 위반에 해당하는 폭력적 전복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안보 빌딩의 깊은 내부 안으로 끌려갔었는데 유죄 판결이 보장된 폐쇄 재판에서 그에게 사형을 판결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인권 변호사 50 명이 나타났습니다. CPT 는 국제 앰네스티와 인권 감시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우리와 그들이 이 사건을 강하게 비난한 후에 그는 풀려 나왔습니다. 한편, 나중에 광장에 돌아온 저와 팀 구성원 폐기가 우리를 어딘가로 데리고 가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젊은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통역해 줄 사람이 없어서 “이것이 좋지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탓으로 그 젊은 남자들과 같이 가고 있는데 환한 얼굴에 큰 미소를 짓는 몰라 카마론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애를 써서 영어로 “썬큐 베리 마치”하고 말했고 나도 애를 써서 쿠르드말로 “조르 조르 스파스 보 토우” “아주 많이 감사드립니다.”하고 대답했습니다.

몇 주 후에 우리 팀이 모두 다 몰라 카마론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 분이 어떻게 용기를 얻어 광장에서 그 말씀들을 선포할 수 있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 그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고 정의와 평화를 뜻하시는 알라/하느님에 대한 믿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같은 하느님께서도 로마로 대주교를 통해서 또한 몰라 카마론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몰라 카마론은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에게 “당신의 정부는, 민주주의를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실천을 기대하면서, 왜 우리가 민주주의 안에서 민주적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독재자들이 권력에 머물도록 지지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저 눈물로 대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꼬란당이 설립되어 쿠르드 자치회 의석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바르자니 씨와 달리바니 씨가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62 일 동안의 비폭력 시위에서 겪은 군사적 제어의 경험에 대한 치유를 받고 있는 중인데 그럼에도 그들이 카페와 도서관을 개장해서 위대한 종교 전통에서 오는, 예컨대 신앙에 기초를 두고 있는 비폭력 행동과 활동가에 대한 내용이 채워진 책들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배우고 연구하고 있어요.

이 젊은이들의 미래에 아직 어려운 투쟁이 남아 있지만, 믿음을 지키며 그들에게 본보기를 제시하는 몰라 카마론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성찰 : 가톨릭 노동자(catholic worker) 운동의 일환으로서

제가 살고 있는 도시 둘루쓰는 이라크 쿠르디스탄의 라니아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 두 도시 사이에 대의원들의 방문교류가 있는데, 이를 통해 시민과 시민 간의 외교적 접촉도 하고 아이디어와 문화도 나눔으로써 친밀감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일반 시민 중에 어떤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듣도록 시간을 마련하면서 서로 신뢰하며 사랑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좋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결국, 하느님은 사랑이시더군요.

마지막으로 저는 도로시 데이와 피터 모린이 설립한 가톨릭 노동자 운동(Catholic Worker)의 원칙을 저의 가정 집 지역 안에서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워커 운동은 하느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베풀어주신 각 사람의 존엄성을 굳게 믿는 것에 근거를 둡니다. 200 개 넘는 가톨릭 워커 공동체들은 비폭력, 자유롭게 선택한 가난함,

기도, 노숙자, 추방된 이, 배고픈 이 소외된 이들을 위한 환대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워커 운동에 함께 하는 사람들은 부정불의와 전쟁과 인종 차별과 모든 폭력에 계속해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도로시와 피터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곧 보편 신이신 하느님에게서 예수님께 주어진 것이죠. 이 원칙은 가톨릭 신자들만의 소유가 아닙니다. 돌과 바위까지 외치며 들려주는 보편적 가르침과 진리입니다.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미국 제국 아래서 이 원칙들을 실천하는 것은 초대 교회 크리스천들이 로마 제국 아래서 이 원칙을 실천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의 국가 미국은 군대를 너무나 확장시키고 있고 자국에 도전을 던지는 이들을 군대로 압박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제국은 상처를 입은 상태에 죽어가는 진통을 느끼면서 강하게 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제국처럼 미국 제국도 무너질 것이기에 아마도 평안히 한 숨을 쉴 수 있을 때가 있겠지만, 그래서 무너진 그 다음에 무엇이 그 자리에 있게 될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그리고 정의평화 활동가와 신앙에 기반을 둔 활동가의 이름으로 미국의 침략과 팽창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오래 동안 저항해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저항하고 항의하도록 우리는 여러분을 격려하며 기도 드립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속한 세계의 한 쪽에서 (핵무기라는) 그 짐승과 투쟁하는 것을 여러분의 투쟁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주십시오. 미간 수녀님과 마이클과 그레그가 감옥에서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핵이 없는 세상을 맞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피정 중에 신앙과 저항의 힘을 키울 때 미국에서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과 같이 노래를 불러보려 합니다. 후렴은 간단한데요, 같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chorus) Keep your eyes on the prize, hold on. Hold on, hold on.

Keep your eyes on the prize, hold on.

(Verse) Paul and Silas were bound to jail, Had no money for to go their bail

(Chorus)

(Verse) Paul and Silas began to shout. The jail doors opened and they walked out.

(Chorus)

(Verse) Ain't but one chain that we can stand, that's the chain of a hand to hand

(Chorus)

(Verse) We've fought jail and violence too And God's love has seen us through

(Chorus)

Faith-based actions in the United States

Michele Naar-Obed

I grew up in a very close knit Italian family, with strong ties to the Catholic Church. I was educated in Catholic school, and studied the sacraments. I was baptized, participated in the sacrament of reconciliation, received Holy Communion in the 2nd grade and was confirmed in the Catholic faith in 7th grade, all completed according to schedule. I was a post Vatican 2 child taught by pre-Vatican 2 priests and nuns. And so I memorized doctrine and creeds and went through the rote performances and practices none of which were ever really explained or talked about, but were strictly enforced.

I was also a product of the 1960's. I came of age in a time of turmoil, questioning, rebellion, and experimenting. I'm a product of a broken family. Alcoholism, divorce, and scandal runs rampant through the generations of my ancestors. With nobody to help me navigate the world with any kind of guide or moral compass, I took off at the young age of 16, on my own to see and experience the world, or at least my immediate surroundings.

I learned early in life that I am a risk-taker, that I know the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wrong; not that I always practiced the right way and stayed away from the wrong way, but at least I knew the difference. I was beginning to learn who my neighbors were and what it meant to love them. I also learned what it meant to be on the margins and how to recognize Christ within the community of outcasts. I found that I was an outcast myself.

I didn't actually recognize these things as I was going through them. Later, I took the time to reflect on my life and I found people to help me look more closely at those experiences so that I could learn from them, I find them to be building blocks on which I continue to use as a foundation for my life. That foundation rests on the back of the Holy Spirit which doesn't always feel solid or precise or clear or neat and orderly. I had a lot of practice staying afloat in troubled water where it's not always easy to see the difference between the expectations and temptations of the world and the hopes and promise that our God has for us and the covenant to which we struggle to remain faithful.

So I share just a small sample of the troubled water that gave me good practice because everything that I have to offer this conference is based on my faith. I try hard to understand, reflect and act through the lens of faith. I believe that there is in fact a universal Divine presence and that our main responsibility in this life is to love God, love each other, and live for the good of the whole to which we are connected.

So one of the ways that I put this faith into practice was through the plowshare movement. The first plowshare action took place in 1980. It came at a time when U.S. citizens were told that the Vietnam war was over and we were now in "peace time". We should all go on about our lives without fear. We should eat, drink and be merry and not forget to thank the

government for preserving capitalism and propping up the empire.

But, there was this little rag tag group of faithful followers who saw something very different and very horrible. They knew that behind closed doors in very dark rooms and with very dark hearts, the empires minions were developing even more lethal and diabolical weaponry which included expanding the nuclear arsenal and creating first strike scenarios. The little group of faithful followers stumbled upon Isaiah's vision as they were searching for guidance from the Spirit. They found Isaiah 2:4, "They shall beat their swords into plowshares, spears into pruning hooks, nation shall not wage war against nation, nor study war anymore.". Through the symbolic but real act of beating the swords of that time into a life giving instrument, they began the process of disarmament which our government was incapable of doing even though we had the non proliferation treaties and laws that demanded we do so.

By all outward appearance, the plowshare action seemed like nothing more than a mischievous stunt, ineffective and naive, and maybe a bit silly. Production of the nose cones for the nuclear warheads that they hammered and poured blood on, continued. Preparations for 1st strike nuclear war continued. Trillions of dollars continued to pour in for more nuclear weapons. What on earth did this action do to change the course of our country's nuclear policy?

Some say it was the first direct blow to the nuclear beast. Some say it cast light into the dark corners where corruption and power hides. Some say it was an invitation to the Holy Spirit to do the long, hard work of disarming hearts and minds which could lead to disarming the empire. Maybe, just maybe, the truth would set us free.

Well that first plowshare action led to another and another and more than 200 others and now, 34 years later we are blessed with the latest Transform Now Plowshare action. On July 28, 2012, Sr. Megan Rice, Michael Walli and Greg Boertje-Obed set out in the dark of the night into the Oakridge Tennessee Y-12 National Security Facility. They hoped to find one particular building; the Highly Enriched Uranium Manufacturing Facility. On hundreds of acres of land, with no road maps or directions, and in the dark, it was like trying to find a needle in a hay stack. After 2 hours of walking and ready to give up, they found themselves face to face with the nuclear beast. They were able to get through fences and bars, past guns and security systems, stumbling along unmarked paths, and listening carefully to the leading of the Holy Spirit and the cloud of witnesses that have gone before them,. Without any interference, they symbolically chipped at the cornerstone of the building that would hold even more highly processed weapon-grade uranium. They poured their blood, spray-painted Isaiah's prophecy on the building, lit a candle and sang,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and when the guard finally arrived, they broke bread and shared it proclaiming, "this is my body, broken open for you...: take this and eat in memory of me.." The guard could have killed them. If the guard had decided to shoot them, the law would have been on his side. He didn't shoot. He recognized them for who they were and he recognized their action for what it was. They were PEACE PROTESTORS. Well, because he didn't shoot, because he didn't even draw his weapon, this guard was fired.

This Y-12 nuclear facility is in clear violation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that was signed in the 1960's. It is in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it is in even clearer violation of God's law and the covenant our ancestors made with God long ago. But none of that matters because the empire through its minions in the courts, have made those treaties and laws irrelevant and created new laws that protect the weapons and those that manufacture them.

What Sr. Megan Rice, Michael Walli and my husband Greg Boertje-Obed did was usher in the Holy Spirit to continue the work of not just disarmament but of transformation in the nuclear facility, in the courts, and now in the jails. This is no easy task for the Spirit, but we know She is up for it because she's working hard.

Sometimes I hear stories of just how close we've come to nuclear war. It's mind boggling how many near-catastrophic nuclear accidents have occurred. I was just a child when the Cuban missile crisis was upon us. The government prepared us for a nuclear war by making us practice hiding under our school desks. What a joke but even worse, what an unconscionable breach of trust between our government and its people. They knew this was a lie.

Years later, after the archives regarding Pres. Kennedy's assassination were declassified and opened, author Jim Douglas uncovered the story behind the nuclear confrontation of the Cuban missile crises and the truth about how the nuclear holocaust was avoided. 2 very powerful men with fingers on the button, John Fitzgerald Kennedy and Mikhail Khrushchev, pondered the fate of the world and the fate of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s children and they asked each other for help to find their way out of this hell and do the right thing for the sake of all life. Even with military advisers and security advisers breathing hard down their necks to stay the course of war, the Holy Spirit breathed even harder and they created a plan that would lead the world away from the brink of nuclear annihilation. Both of these men, presidents of their respective empires, took a leap of faith and went with the Holy Spirit. They asked and God answered. They faithfully followed God.

Sometimes I can't help think that every plowshare action was a response to asking God to save us from ourselves. We followed God's advice which was given to us through God's prophet Isaiah, "They shall beat their swords into plowshares, their spears into pruning hooks..."

For my part in this lineage of plowshare actions, I participated in 2 of them. The first was on Good Friday, 1993, 3 weeks after Greg and I married. It was in part, the way we chose to consummate our marriage. The second was August 7, 1995, the 50th year commemoration of the atomic bombing of Hiroshima and Nagasaki. I prepared for this action while our daughter Rachel was in my womb. I gave birth to her in the face of the beast, and when she was 10 months old, I hammered on a Trident nuclear submarine and marked it with my blood. Many years later, after 3 separate accidents, that particular submarine, the USS Greenville was taken offline. Some people believe it was jinxed. Maybe faith-based actions aren't as ineffective as people think.

As time went on, I began to ask the question; if I'm going to say no to weapons and war, what will I say yes to in order to solve conflict? Peace is not the absence of conflict. Conflict seems to be a burden we will always bear. It's the way that we deal with the conflict that matters. A word of caution to share; be careful what you ask for because you just might get it.

And so along came Christian Peacemaker Teams (CPT), a faith-based violence reduction grass-roots group operating in areas where there is lethal conflict. CPT goes to these areas only by invitation of the local people working withi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e are not invited by governments, by the UN or any other government based entities. They may welcome us, but they don't invite us to work for them or their interests.

What we found, and I think this is still difficult for CPTers to articulate, is that we were invited to work with local people in the midst of a lethal conflict. These people were themselves looking to a universal Divine presence, a universal God who would guide us in determining actions to minimize the violence. Together, through the different faith lenses, through the different prophets we might find a way out of the hell.

CPT has teams in 4 different countries. After going through a month-long training and participating in a few delegations, I chose to join the Iraq team.

I first came to the team in 2002, before the overthrow of the Baathist regime, before the shock and awe attack, before the liberation turned occupation and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puppet government headed up by Nouri Al-Maliki. We were by no means acting as human shields or heroes. We were there to bear witness and to tell the stories. This war and its preparations would be reported on by "embedded" journalists who would only be allowed to see what the conquerors wanted them to see. We weren't there to judge or condemn the soldiers but to bear witness to the consequences of misguided policies, both political and military. We literally saw the shift in James Garner's policy of liberation to Paul Bremer's policies of occupation. We saw the damage that these policies did to the relationships to the people in Iraq. We saw the rounding up of all males from the ages of 11 to 70 who were "suspected" terrorists just because they lived in a Sunni area. We saw Iraqi lawyers struggle to find these males, only to learn that they had been thrown into the US and British-run prisons where we later learned that they were tortured, humiliated and often disappeared. Our team was asked to put together a report based on 71 survivors of the infamous Abu-Graib prison and Camp Bucca and other such hell-holes. When the team released the report, every media chain except the ones owned by the US ran the story for days. When I returned home with the report in hand, nobody knew what I was talking about.

Our team saw the illegal collective punishment of an entire village, Abu-Hishma. Close by was the establishment of one of the 14 "enduring" US bases. What was once a school for Iraqi children in the city of Balad later became Anaconda Base, complete with golf course, McDonalds, Burger King and Taco Johns and the morgue where all dead soldiers came to be processed and sent home in a body bag.. Many, many people who resisted this occupation and

establishment of a permanent US presence were punished severely and many were disappeared. But as the saying goes, the chickens came home to roost as this base is now taken over by the ISIS, the new generation.

Our team saw the razing of the city of Fallujah and the illegal use of the chemical weapon white phosphorous. We saw the establishment of the low insurgency warfare policy entitled the Salvadoran Option where techniques of counter insurgency warfare, torture, creation of fear, chaos and the pitting of one Iraqi faction over another were instituted. We saw US military advisers in buildings where torture chambers were established.

To the best of our ability we tried to tell these stories, but we were up against an iron curtain and it was not the iron curtain of the USSR.

Our team got just a bit too close to the fire and 4 of our team were kidnapped and used as political pawns in an attempt to get some of the Iraqi prisoners, released. They even negotiated our captive teammates for the release of Iraqi women prisoners. After 4 months, 3 were released through a deal made with the British military and one was killed. His body was found in a black plastic garbage bag along the road to the airport just a couple of weeks before the other 3 were freed. The Iraqi people with whom we were working, the human-rights workers, the nonviolent activists, the civil society organizers told us there was nothing left for us to do there and our presence was now even exacerbating the violence against them. We were the only foreigners left in Baghdad. The other UN workers, and NGO's left after the UN building in Baghdad was blown up and then the International Red Cross building was destroyed. It was believed if you were a foreigner, you were either a contractor or a military person from the occupying nation and if any Iraqi was seen with us, they were believed to be cooperating with the enemy.

In our own ways, the CPT team continued to tell the stories. Eventually, we even broke through the iron curtain and we were able to reveal the extent of the systematic torture and violations of human rights perpetrated against the Iraqi people by military leaders all the way to the top. A few European countries even took out arrest warrants for Dick Cheney, George Bush Jr. and Donald Rumsfeld for their participation in war crimes.

Our team moved to the Kurdish north of Iraq where we thought we might sit it out until things calmed down in Baghdad and we could return. Things never did calm down enough and during that time we learned about the Kurdish struggle and their relationship to the region and to the world. The struggle was by no means over for them even though Saddam was gone and the Kurds of Iraq were protected under the northern no-fly zone. The Kurds in Turkey, Iran and Syria were in much worse shape than the Kurds of Iraq.

At the invitation of the Kurdish people, CPT remains to this day in the Kurdish north of Iraq, living with the people, and walking with them as they struggle for self-determination and their God-given human rights. In my 3 years of living with the Kurdish people and my 10 years of studying the history of the Kurdish people I know that I will never fully understand the depth or the richness of their society, of their relationships or struggles. Their recorded history goes back 9,000 years. Many of the ancient religions are still alive and well although

the world almost lost all of the Yezides to the rampage of the ISIS in its recent attack against Sinjar. As time goes on, many are realizing more and more that this new monster, ISIS, was “made” by the USA.

So going up against these odds of the empire one might ask, what keeps us all going? Again, the answer is faith. I met God upfront and close in the hearts of the Kurdish people, of the Arab people, of the Muslims and the Chaldean Catholics, the Zoroastrians and the Yezides. I met God through them in the shadow of the empire, in the worst of human behavior, in the most desperate of conditions, and in the middle of a battle-field with live ammunition. God is alive and they re-introduced God to me time and time again. This is a gift for which I owe my life. It is with those folks that my spirit will be bound with forever.

I wanted to give a small example of meeting this universal God in Kurdistan. While I was on team in February 2011, the Kurds experienced the “Kurdish Spring” This followed on the heels of the Tunisian and Egyptian uprisings and what later became known as the “Arab Spring”. The Kurdish youth decided it was time to confront the corruption that they saw in the Barzani-Talibani political system. These 2 tribal leaders and their tribal members fought against the Baath regime and helped usher in the liberation of the Kurds from the dictator Saddam. They were fearless fighters in those mountains during the 1980's but they know little of what it means to be political leaders of their society. Yet, they gained control over the Kurdish political system and promised a better life for all Iraqi Kurds. After 20 years, the Kurdish people saw their dreams shattered by nepotism, corruption, and a civil war. They saw these 2 leaders sell the people out by making deals that would benefit their own tribe and not the Kurdish community as a whole.

In 2011, the young people took to the streets and were met with a violent backlash by the political leaders. The bulk of the demonstrations took place in Suleimaniya, the city in which our CPT team lives. The demonstrations lasted for 62 days. I spent just about all 62 days in the street with them.

They were nonviolent demonstrations. Their organizers adhered to a strict code of nonviolence. Government agents acting as provocateurs tried to push them into a violent response. The U.S. Consulate which was located about 75 km away was being kept abreast of the activities. However, they were being informed by the government agents who created violent situations in order to illicit a violent response from the nonviolent demonstrators so that they could justify a violent military crackdown on the movement. The U.S. policy was to protect the people's rights to redress their government as long as it was not a violent uprising. The U.S., however, had good reason to want the Barzani-Talabani regime to remain in power and the young people were advocating for a new political party, the Gorran Party. The U.S. diplomats at the U.S. consulate openly stated that they would not want to work with the Gorran Party leader. Mr. Barzani and Mr. Talabani are Western friendly, corporate friendly and oil friendly. They are well trained puppets in the hands of the West.

Early in the days of protest, the Muslim religious leaders came to the place of the demonstrations called Freedom Square. They brought Friday prayer to the square and they

preached about faith-based resistance to corruption and greed and unchecked power.

One Friday, I heard Mullah Ali Kamaron preach. Without a translator, I was only able to understand a fraction of what he said but I could tell it was good. Later that evening I went to my neighbors house to watch the news and talk about the days events. My neighbors wife stood with us at the demonstrations some of those days but her husband was afraid to be publicly involved.

Anyhow, the news comes on and there is Mullah Kamaron doing his sermon at the square. Again, its all in Kurdish but my neighbor is multilingual and can translate what he's saying. Well as Mullah Kamaron is speaking, my neighbor is so excited and is saying things in Kurdish like, zor jwana, which means very beautiful and rasta, which means this is correct, and a few other phrases that I can understand. I say Sirwan, what is he saying, tell me what he is saying and Sirwan is getting more and more excited and his wife who knows very little English is trying to translate for me because Sirwan is too caught up in the excitement of the moment to translate it into English. So Banaz, his wife, is yelling over Sirwan's booming voice in very broken English trying to tell me what Mullah Kamaron is saying. So because Banaz is trying to speak over Sirwan's booming voice, Sirwan turns up the television, which causes Banaz to yell louder and we keep going like this until.....the electricity cuts off and the television is no more.

So we all take some deep breaths and chew on some sunflower seeds and drink some tea and Sirwan finally tells me what Mullah Kamaron said..... And I couldn't believe it but they were almost the exact same words that Archbishop Oscar Romero spoke at his homily as the Salvadoran soldiers stood at the back of his church. Archbishop Romero begged the soldiers to lay down their weapons and to stop the killing of their peasant brothers and sisters for the interests of the oligarchy. Archbishop Romero was assassinated day later because of that homily.

So Mullah Kamaron said to the 10,000 soldiers that surrounded us in the square for 62 days; "Brothers lay down your weapons. Don't ever shoot your brother who is speaking up for justice. This is not a fight of believers against nonbelievers. This is a nonviolent revolution, a revolution against corruption and greed and lawlessness by those in power".

Well anyhow, that night gunmen came to Mullah Kamaron's house and shot it up. Later he was arrested, and charged with a low-level violation of demonstrating without a permit. He was warned, however not to come back to Freedom Square, or else..... He was back the next Friday and was arrested under the anti terrorism act for inciting a violent overthrow. He was immediately disappeared into the bowels of the security building where they were planning a closed trial where a conviction was assured and the penalty was death.

Well, 50 pro bono lawyers came to the scene. CPT called Amnesty International and Human Rights Watch and we made such a loud outcry and he was released. Meanwhile, back at the Square me and my teammate Peggy find ourselves surrounded by a group of very loud young men who want to take us somewhere. Again, we don't have a translator with us and I'm thinking, well this might not be too good. With little choice we move with the crowd of

young men and find ourselves standing in front of a beaming smile on the face of our Mullah Kameron who says in his very best English; “Sank u very much”. And I say in my very best Kurdish; zor, zor spass bo tow, thanks very, very much to you.

A couple of weeks later my team mates and I were invited to Mullah Kamarons house where we ask him what gave him the courage to say the things he said at the square. Of course he told us that it came from his faith, from his belief in Allah/God, who loves us and wants justice and peace. The same God that spoke through Archbishop Romero, spoke through Mullah Ali Kameron. Later on he asked us with tears in his eyes, “Why does your government say they love democracy so much and expect us to live their democracy yet they put dictators in our political system that will not let us live democratically?” I could only answer with my own tears.

Barzani and Talabani are still in power to this day although the Gorran Party has been established and they continue to win many seats in Parliament. The young people are still recovering from the oppressive military crackdown that they experienced after 62 days of nonviolent demonstration, but they opened up a cafe and library and brought in books, many of which are filled with examples of faith-based nonviolent actions and activists that come from all of the great faith traditions. They continue to study and learn.

They still have tough battles ahead of them but they also have people like Mullah Kameron who continues to keep the faith and be an example.

My city of Duluth is a sister city with the city of Rania, Iraqi Kurdistan. Through ongoing delegations to and from our respective cities, we aim to strengthen the bonds of friendship through citizen to citizen diplomacy and sharing of ideas and culture. This came about because 2 ordinary people took the time to listen to each other, to trust each other and to believe in the possibility that love can overcome against all odds. And after all, what is God but love.

Finally, in my own backyard, I try to live by the Catholic Worker principles as given to us by the movement's founders Dorothy Day and Peter Maurin. The Catholic Worker Movement is grounded in a firm belief in the God-given dignity of every human person. Over 200 Catholic Worker communities remain committed to nonviolence, voluntary poverty, prayer, and hospitality for the homeless, exiled, hungry and forsaken. As Catholic Workers, we continue to protest injustice, war, racism, and violence of all forms.

These principles were given to Dorothy and Peter by Jesus in the Sermon on the Mount and those principles were given to Jesus by a universal Divine God. Catholics don't own them. They are universal teachings and truths that can be heard crying out from the rocks and stones themselves. If we listen, we can hear them.

It is by these principles that we seek to live even under the shadow of our empire just like the early Christians sought to live under the shadow of the Roman empire.

My county has become more and more militarized seeking to use the military to repress anyone who challenges it. But the empire is wounded now and in its death pangs it lashes out

hard. Like all empires it will fall and maybe we can take a moment to breath a sigh of relief but we have to ask ourselves, when it falls, what will take its place?

In conclusion, and on behalf of the peace and justice activists and activists of faith, we thank you for the years of resistance you have spent to stop US aggression and expansionism in your region. We want to offer our encouragement and our prayers for you to keep going.

Know that we join you in the struggle as we continue to resist the beast on our side of the world. Know that Sr. Megan, Michael and Greg give of their lives in jail so that we all may taste a nuclear-free world. We believe that our faith can move mountains

In the U.S. when we have our faith and resistance retreats, we often sing a song that I want to share with you. The chorus is very simple and I hope you will join in:

(chorus) Keep your eyes on the prize, hold on. Hold on, hold on. Keep your eyes on the prize, hold on.

(Verse) Paul and Silas were bound to jail, Had no money for to go their bail (Chorus)

(Verse) Paul and Silas began to shout. The jail doors opened and they walked out. (Chorus)

(Verse) Ain't but one chain that we can stand, that's the chain of a hand to hand (Chorus)

(Verse) We've fought jail and violence too And God's love has seen us through (Chorus)

□ 주제발표 3 □

오키나와에서 본 평화헌법

谷 大二(Tani Daiji) 주교

전 일본 주교회의 정의평화 위원회 위원장, 오키나와 평화운동

沖縄から見る平和憲法 오끼나와에서 본 평화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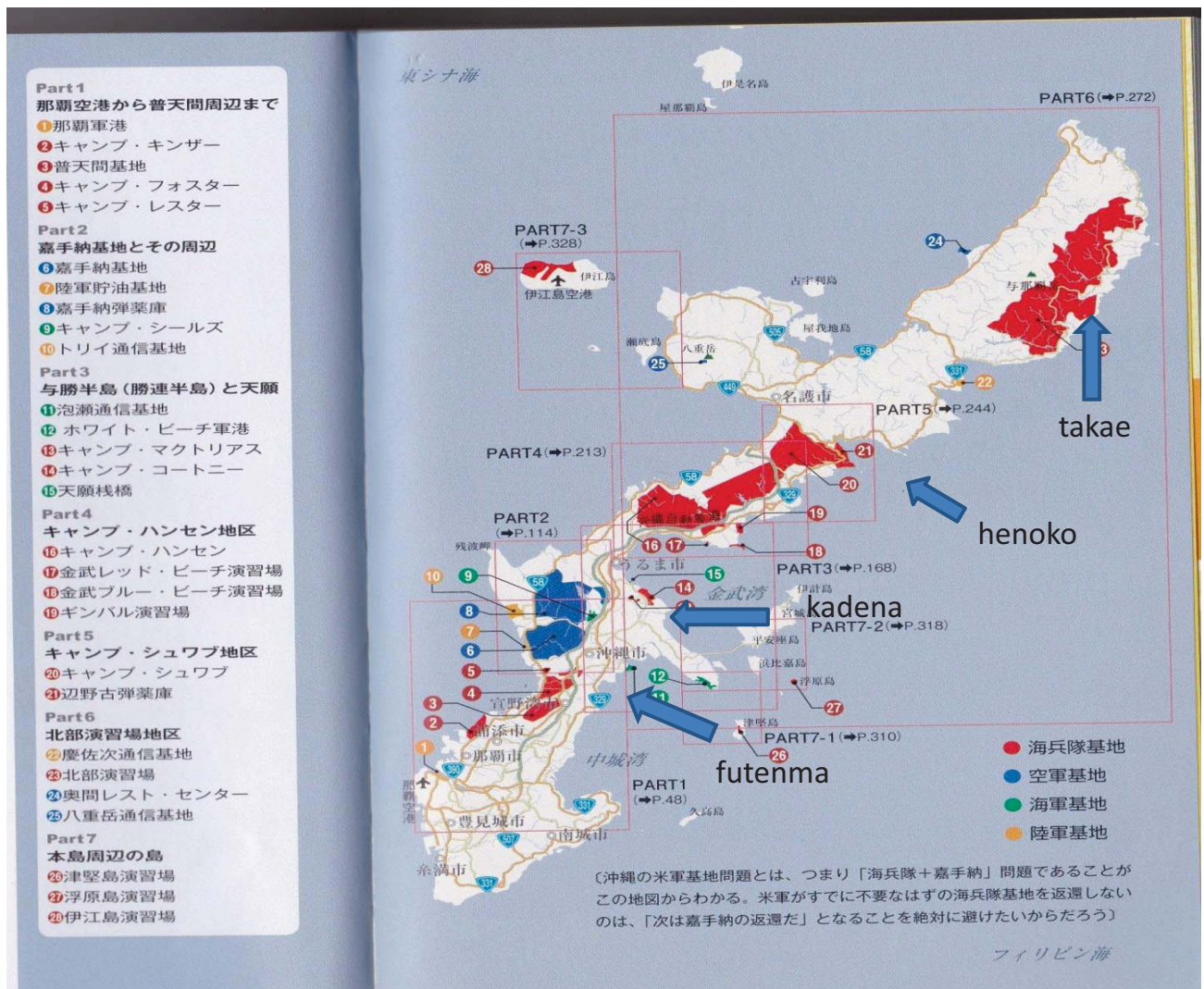
2014年9月26日
カンジョン村シンポジウム
강정마을 심포지움

谷 大二司教
타니 다이지 주교



Futenma Base

후텐마 기지



Data of Base

- Size of Okinawa: $100\text{Km} \times 4 \sim 28\text{Km}$ 1208Km^2
0.3% in Japan
- USA Base size in Okinawa: 233Km^2 , **18.4% of Okinawa**. USA Base Okinawa/Japn=74%
- USA Base occupy the important and central area in OKinawa
- % of Base: Kadena city 82.5%, Kin town 59.3%, Chatan town 52.9%, Ginowan city 50.7%, Higashi Village 41.5%, Yomitan Village 35.8%

Accident of Base

- 1950 USA constructed Bases in Okinawa by Violence(bayonet and bulldozer)
- 1953 Korean Armistice Agreement、
- 1955 Rape affair against child Yumiko
- 1959 Air force plane crash on Miyanomori Elementary school in Isikawa city
- 1972 Okinawa return to Japan
- 1975 Finish Vietnam War
- 1995 Rape affair against children by US soldiers
- 1996 **SACO** Agreement : US and Japan make plans: new marines airport in Henoko , Heli-pad in Takae, and return Futenma base in 5~7 years.
- 2004 **Helicopter of Marine crash on the University** near by Futenma Base
- 2005 Rape affair against child by USA soldiers
- 2013 Helicopter of Marine crash on the forest in Kin town. **Ospray comes**.

沖縄国際大学ヘリ事故2004年
오끼나와 국제대학 헬리 사고 2004년



オスプレイ配備2014年
오스프레이 배치 2014년





Henoko, Oura bay
헤노코, 오우라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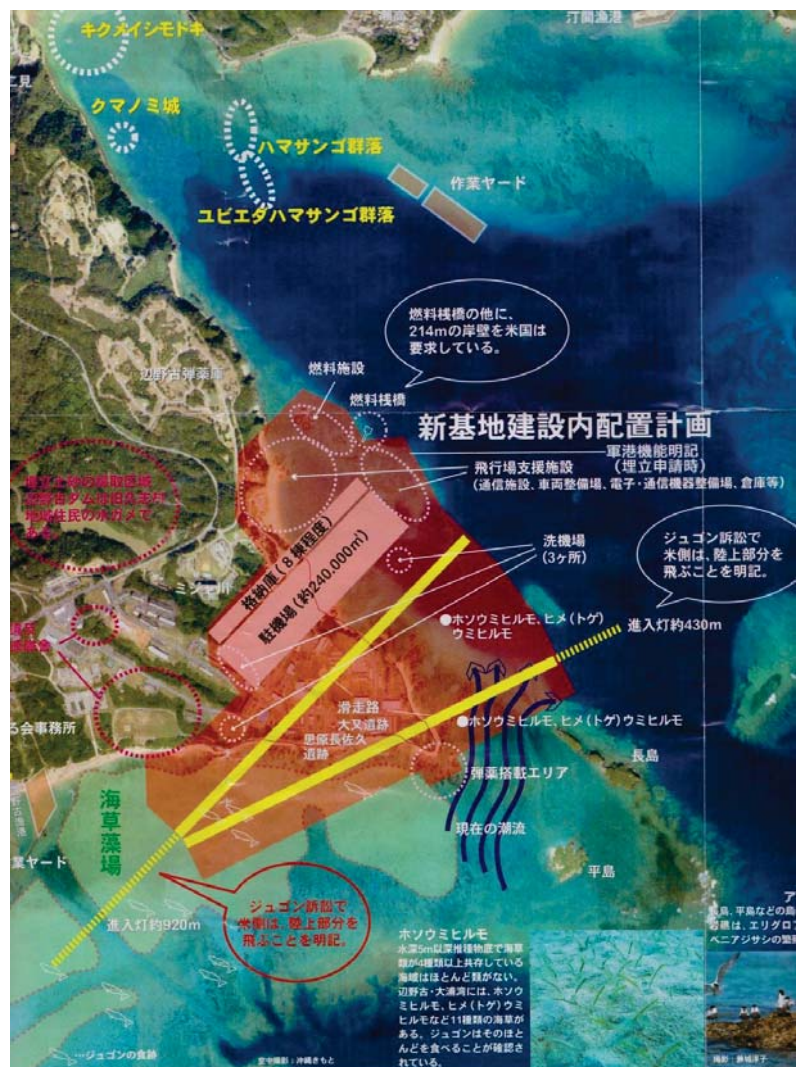


Camp Schwab (Henoko)
스와브 캠프(헤노코)



辺野古
Henoko

- ◆ Reclamation area
160 hectare
(wall: 10m sea level)
soil : 21,000,000m³
- ◆ Landing strip 1800m
(include over run)
- ◆ Dugong food area



2004年辺野古海上阻止行動
2004년 헤노코 해상저지행동



ジュゴン現れる2007年7月
듀공 나타난 2007년7월



ジュゴン訴訟 듀공 소송

2008年 サンフランシスコ連邦地裁がキャンプが辺野古の基地建設に関して「米文化財保護法」違反を認定。国防省に対して「ジュゴンの悪影響を考慮する措置」を命令。

2008년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이 캠프가 <미문화재 보호법> 위반함을 인정. 국방성에 대해 “듀공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함

2012年 裁判はストップ **2012년 재판 중지**

2014年7月 国防省が原告側に措置を通知

2014년7월 국방성이 원고측에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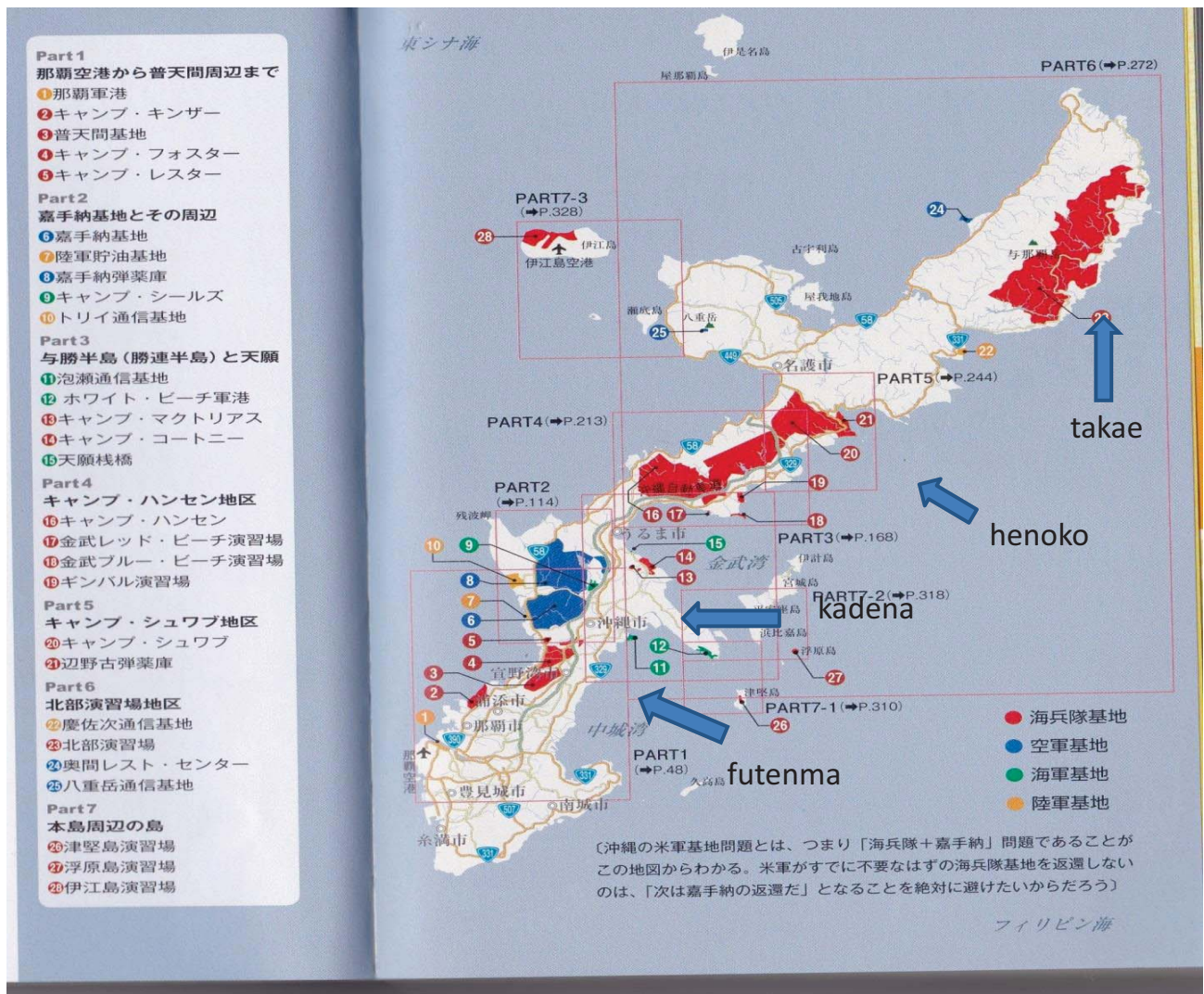
2014年7月 原告側が反論、ジュゴンの食べ跡を通知、措置の不当性を主張

2014년7월 원고측이 반론, 듀공이 먹고 있는 모습을 통지, 조치의 부당성을 주장

2014年8月 連邦地裁が原告側の再提訴を受理

2014년8월 연방지방법원이 원고측의 재소송을 받아들임

2014年辺野古
2014년 헤노코



高江座り込み 다까에 농성



Sisters Sitting in takae(高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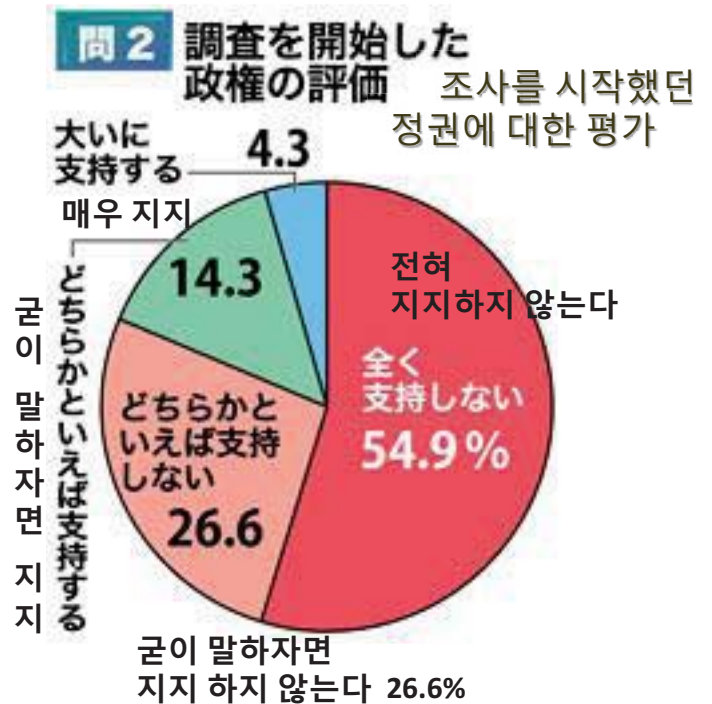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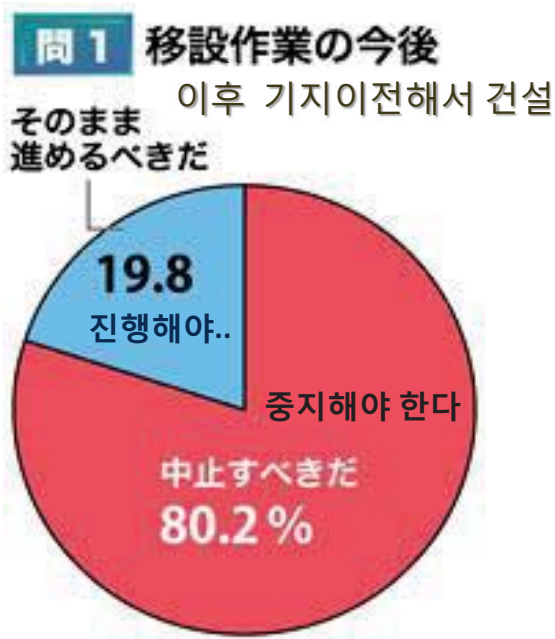


• 표적이 된 마을

- 2012년 9월29일.
- 미군 - 후텐마기지는 완전히 봉쇄되었다.
-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일본인>은 모른다.



沖縄の住民は新基地建設に反対琉球新報、OTV世論調査2014.8.26
 오키나와 주민은 신기지건설에 반대, 류구신문, OTV여론조사 2014.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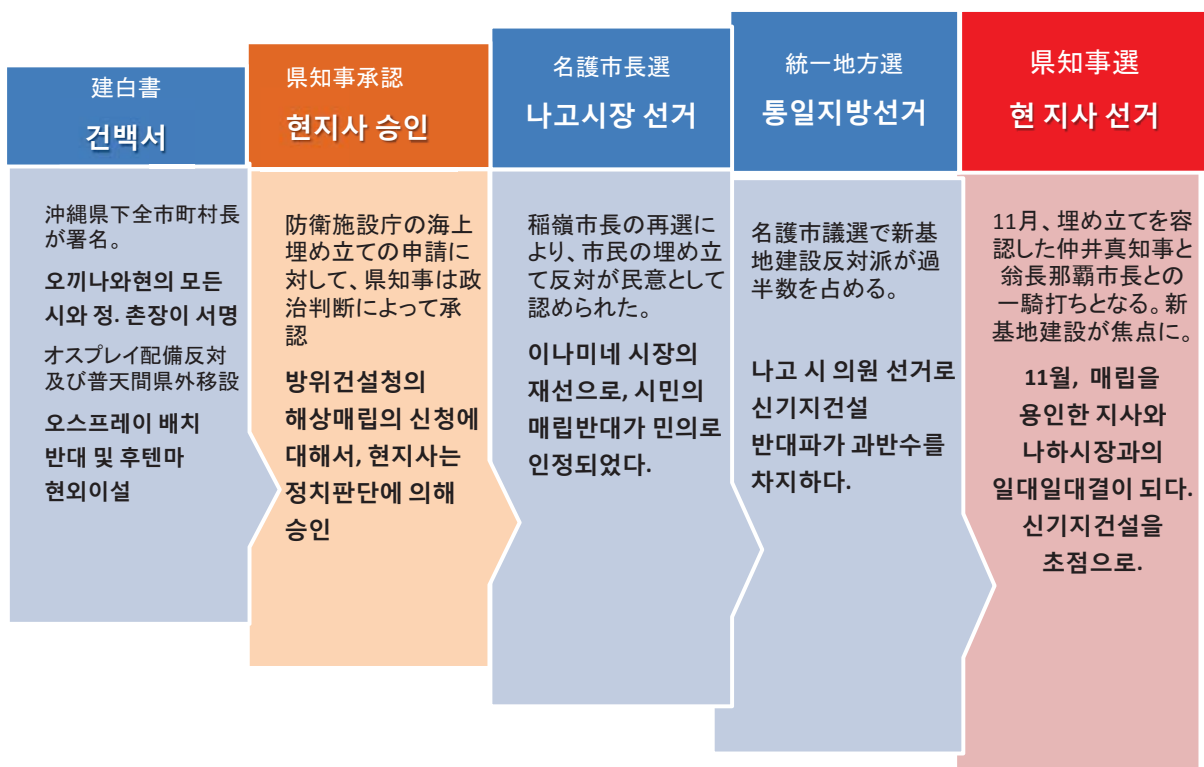
統一地方選挙2014/9/7
 통일지방선거 2014///9/7



住民の意思に反する新基地建設 주민의 의사에 반대되는 신기지건설

- オール沖縄で新基地建設反対の運動は広がっている。2013年 オール沖縄による「建白書」提出。
오끼나와 전체에서 신기지건설반대 운동이 퍼져가고 있다.
2013년 오끼나와 전체가 <건백서>제출
- しかし、政府は「基地負担軽減」と言いながら「建白書」を無視して、新基地建設を強引に押し進めようとしている。
그런데, 정부는 <기지부담경감>이라고 하면서<건백서>를 무시하고, 신기지건설을 강력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 普天間基地の演習飛行場は航空法にも適合しない危険で、非合法なもの。条件なしに即刻撤去すべきもの。
후텐마기지의 연습비행장은 항공법에서도 부적합한 위험하고 비합법적인 것이다.
조건없이 즉각 철회해야 한다.
- 辺野古・高江は普天間移設先ではなく、新基地建設そのもの。辺野古は前線基地となる。
헤노코.. 다카에는 후텐마 기지이전이 아니라, 신기지건설 그 자체다.
헤노코는 전선기지가 된다.
- 辺野古は1960年代に建設計画があったが、ベトナム戦争による予算不足で中止に。
헤노코는 1960년대에 건설계획이 있었지만,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중지됨.
- 今回の辺野古基地建設費1兆5000億円を日本の税金で負担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
이번에 헤노코기지 건설비 1조5000억엔을 일본의 세금으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最近の政治的流れ 최근의 정치적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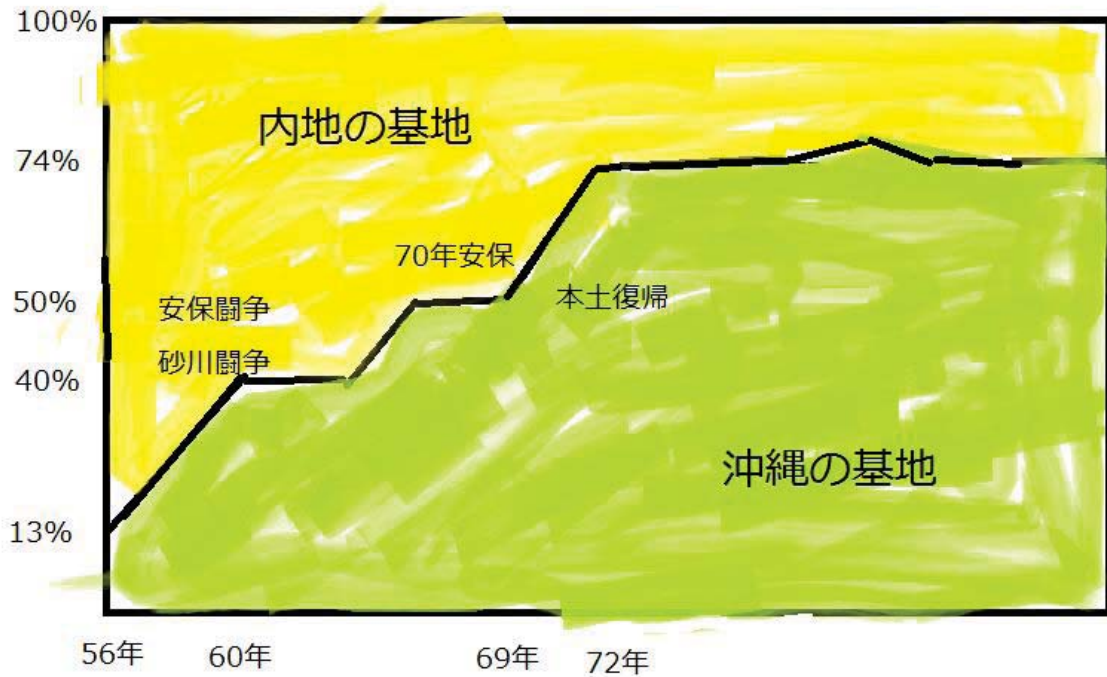
勝つためには、「あきらめない」 이기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는다>

- 11月の県知事選挙が焦点に。
11월의 현 지사 선거가 초점이 됨.
- それまで、辺野古・高江の既成事実作りとなる工事を阻止し、少しでも遅らせる。
그때까지, 헤노코- 다까에에 이미 기정사실이 되는 공사를 저지하여, 조금이라도 늦추게 한다.
- 新基地建設反対運動は島ぐるみ闘争となってきた。
신기지건설 반대운동은 섬 전체의 투쟁이 되어 왔다.
- 沖縄独立論も出てきている。「琉球独立学会」少なくとも自治権、自決権を確立する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
오키나와 독립론도 나오고 있다. <류구독립학회>는 적어도 자치권, 자결권을 확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沖縄の歴史知らなければ 沖縄の心は分からない 오키나와의 역사를 모르면 오키나와의 마음을 알 수 없다

琉球処分 1875 류구처분 1875	琉球王国の終焉と植民地化 皇民化教育の徹底 류구왕국이 끝나고 식민지화. 항민화교육이 철저해짐
沖縄戦 1945 오키나와전투 1945	本土防衛の捨石作戦、住民を巻き込んだ地上戦 沖縄の住民の1/4が犠牲に ... 본토방위를 버리는 작전, 주민을 끌어들인 지상전. 오키나와 주민 1/4의 희생으로
米軍支配 1945-72 미군지배 1945-72	日本の独立と引き換えに沖縄は米軍支配のもとに 銃剣とブルドーザーによる土地強制収用 일본의 독립과 교환해서 오키나와는 미군지배하에 총칼과 불도저로 토지강제수용됨
本土復帰 1972 본토복귀 1972	平和憲法の下に帰属する期待は裏切られ、米軍基地が増え、自衛隊の基地まで 평화헌법하에 귀속된다는 기대는 무너지고, 미군기지는 계속 늘고, 자위대 기지 까지
SACO合意 1996 SACO 합의 1996	少女強姦事件と県民闘争はSACO合意に。しかし、日米政府それをテコに新基地(辺野古高江)建設を進める 소녀 강간사건과 현민들의 투쟁이 SACO합의에 이름. 그런데 미-일정부 그것을 빌미로 신기지(헤노코-다까에) 건설을 추진.
辺野古着工 2014 헤노코 착공 2014	県民80%が反対するも、仲井真知事は公約を翻し辺野古埋め立て許可、沖縄を金で売った男と言われる。 현민의 80%가 반대하는데도, 히로카즈 나카йма 지사는 공약을 번복하여 헤노코 매립을 허가. 오키나와를 돈으로 판 남자라고 불려지다.

日本と沖縄の基地割合の変遷 일본과 오키나와의 기지비율의 변천



日本の戦後 일본의 전후

ポツダム宣言無条件受諾による終戦

포츠담 선언 무조건 수락에 의한 종전

神道指令、東京裁判、日本国憲法(主権在民、平和主義、基本的人権)諸外国公約

신도지령, 동경재판, 일본국 헌법(주권재민, 평화주의, 기본적 인권) 모든 외국에의 공약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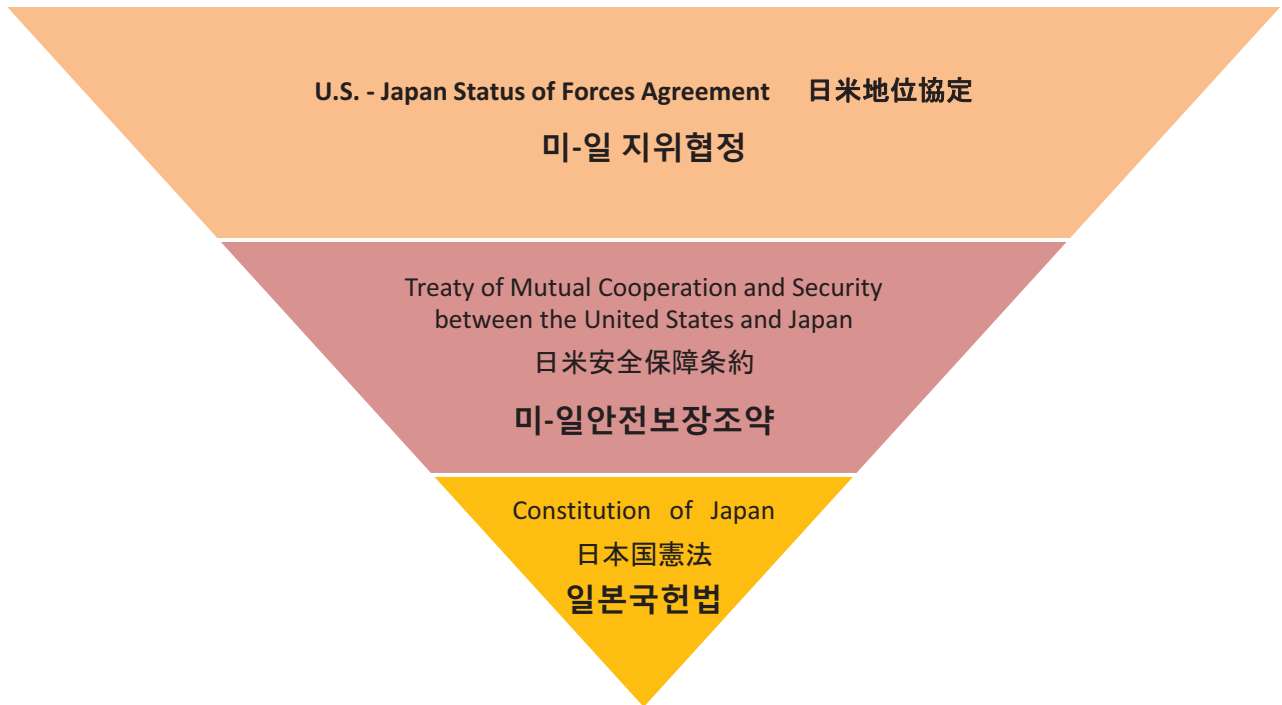
+ 旧安保条約 ⇒ 安保条約

구 안보조약 ---- 안보조약

+ 日米行政協定 ⇒ 日米地位協定

미일행정협정 ---- 미일지위협정

優先順位 우선순위



危うし、日本の平和憲法
위험... 일본의 평화헌법



沖縄から見る平和憲法 오끼나와 측에서 보는 평화헌법

1952年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平和憲法成立させた日本は独立(?) 평화헌법 성립시킨 일본은 독립(?)
- それは密約(日米地位協定)と沖縄をアメリカに売り渡しての独立であった。沖縄では「屈辱の日」という。 그것은 밀약(미일지위협정)과 오끼나와를 미국에 팔아넘긴 대가로 얻은 독립이었다. 오끼나와에서는 <굴욕의 날>이라 한다.

1972年

沖縄本土復帰 오끼나와 본토 복귀

- 沖縄に人々は平和憲法の下に帰属することを夢見ていた。しかし、復帰後、米軍基地は増え続け、自衛隊も来た。 오끼나와 사람들은 평화헌법 아래 귀속할 것을 꿈꾸고 있었다. 그런데, 복귀 후, 미군기지는 계속 늘고, 자위대까지 왔다.

平和憲法? 평화헌법?

安保条約, 안보조약, 日米地位協定 미-일지위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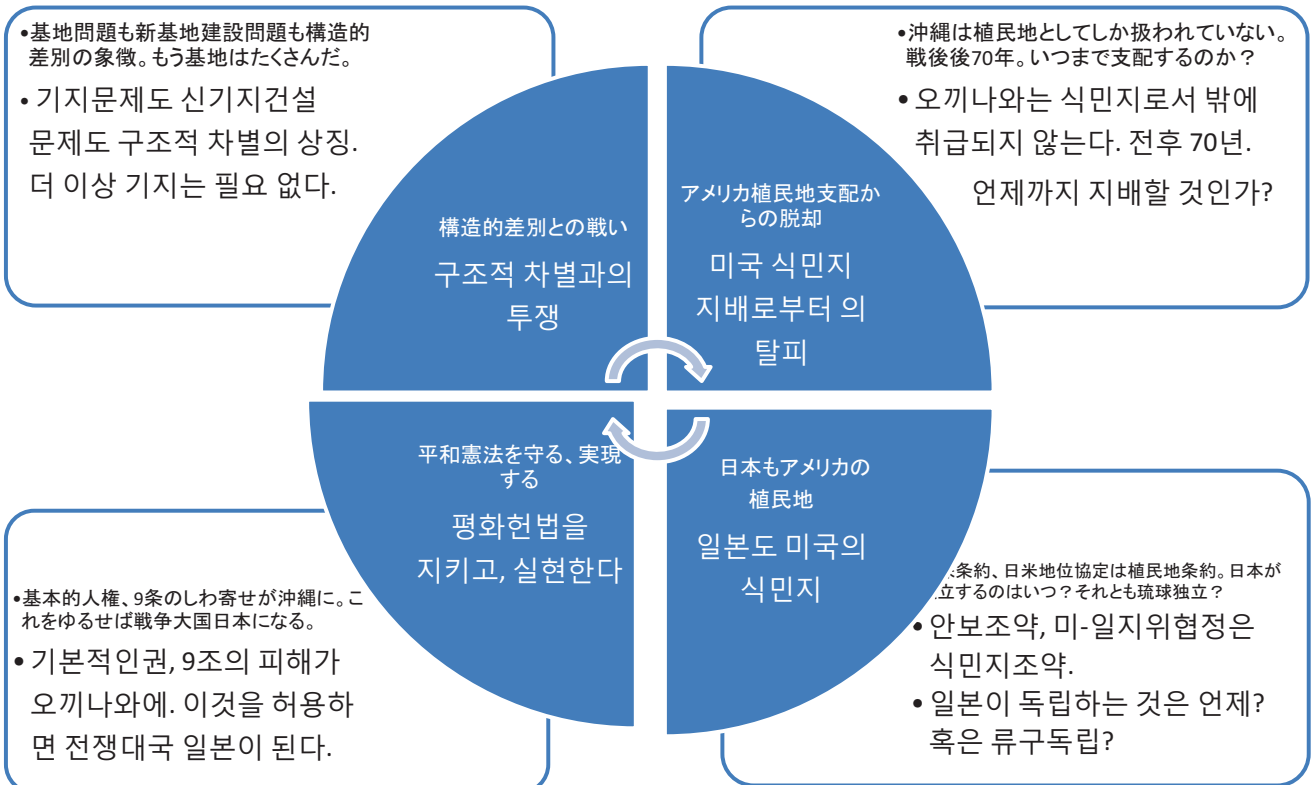
- 日米地位協定は沖縄に犠牲(基地、レイプ、事故など)を強いている。この沖縄の犠牲の上日米安保、憲法9条が成り立つ。沖縄から見れば憲法9条は虚構だ。集团的自衛権
- 미-일지위협정은 오끼나와에 희생(기지, 레이프, 사고 등)을 강요하고 있다. 이 희생 위에 미-일안보, 헌법9조가 성립함.

2014年

집단적 자위권

- 集团的自衛権は、日本がアメリカと一緒に他国と戦争することを意味する。沖縄は最前線基地となり、再び戦場となる危険性をはらんでいる。沖縄は一層犠牲を強いられることになる。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미국과 함께 타국과 전쟁할 것을 의미한다. 오끼나와는 최전선기지가 되어, 재차 전쟁 위험성을 안고 있다.

辺野古・高江の新基地反対運動の意義 헤노코-다카에의 신기지 반대 운동의 의의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서울 마포구 서강대길 17 예수회 한국관구본부 105호

Tel. 02-3276-7708 **e-mail** jesuitadvocacy@sogang.ac.kr **Facebook** Jesuit Advocacy